

매천 황현의 서울 경험과 詩文學

배 중 석*

<目次>

- | | |
|----------------|----------------|
| I. 서론 | IV. 고향에 대한 그리움 |
| II. 유람 중 내면 형상 | V. 결론 |
| III. 名士들과의 교류 | |

<국문 초록>

매천 황현(1855~1910)은 전남 광양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 훌륭한 스승을 찾아 이웃 고을인 구례까지 왕래하며 학문을 했다. 그러나 약관이 되자 더 이상 시골의 고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했던 것이다.

서울을 출입한 지 만 10년간 그는 다양한 名士들을 만나 지적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고, 고향에서는 가기 힘든 금강산과 천마산을 유람하며 견문도 넓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 조정의 失政을 직·간접적으로 목도하여 ‘도깨비 세상’이라고 비난하며 은거를 결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서울은 그의 일생에 큰 전환점이 된 곳이었다.

매천이 서울에 있을 때는 아직 학문이 완숙되지 않은 시기였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그의 삶과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매천이 서울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시도 하였다.

서울 경험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었다. 첫째, 서울에 있을 적에 유

*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 bcccs@hanmail.net

람하며 지은 시를 중심으로 거기에 드러난 내면의 자각을 살펴보았다. 둘째, 서울에서 교유한 명사들에게 받은 영향을 알기 위해 평생토록 그들을 읊은 시를 살펴보았다. 셋째, 나그네의 처지에서 새롭게 인식되는 가족과 고향을 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처럼 서울 경험이라는 제한된 시공간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접근하면서 서울이 그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었는지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주제어】 매천, 황현, 서울, 유람, 교유, 시

I. 서론

매천 황현(1855~1910)은 전남 광양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 구례에 있는 王錫輔(1816~1868)를 비롯하여 그의 세 아들 王師覺(1836~1895)·王師天(1842~1909)·王師瓚(1846~1912)을 찾아가 수학하였다. 왕씨 일가는 당시 구례 일대의 학문을 이끌어갈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 특히 매천의 큰 어머니 왕씨의 친정이기도 했다. 매천은 이곳에서 청년시기까지 학문을 하였다. 하지만 20세가 되자, 시골의 고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서울에 올라갔다.¹⁾

약관이 되어서는 鄉里의 우매하고 비루한 풍습을 걱정하여 북으로 서울에 가서 유학하였다.²⁾

1) 매천은 그의 스승인 왕석보의 시를 평하면서 “선생은 읍시에 뛰어났지만 고체시는 없었고, 唐·宋의 시풍에 맴돌면서 漢·魏의 시풍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것은 바로 벽지에서 궁하게 살아 고증과 건문이 적었기 때문이다[長於詩律而無古體, 低回唐宋而無漢魏騷選之遺意, 則以窮居地僻, 少考據聞見之助也].”라고 하였다. 黃玿, 『川社詩稿序』(최승효 편, 『(國譯)黃梅泉 및 關聯人士文墨萃編』, 未來文化社, 1985, p.57).

2) “弱冠, 患鄉里閭陋, 北游京師.”(金澤榮, 『黃玿本傳』, 『韶漢堂文集定本』 권9, 『문집총간』 권347, p.340c).

처음에 雲卿(황현의 字)이 고향에서 문학공부를 했는데 문견이 고루함을 걱정하자 누군가 서울은 大學士가 모이는 곳이라고 알려 주었다. 운경은 혼연히 크게 소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반 천리를 걸어서 북상했다.³⁾

김택영과 이견창의 말을 인용하였다. 매천의 학문에 대김택영과 이견창의 말을 인용하였다. 매천의 학문에 대한 열정이 그를 서울로 이끌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되었다.⁴⁾ 물론 부모님의 권유로 과거시험을 치르는 목적도 있었다.⁵⁾

매천이 처음 서울에 발을 디딘 해는 1878년이었고, 진사에 급제한 뒤 낙향한 것은 1888년이였다. 그는 만 10년간 서울을 출입하면서 유람을 다니며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名士들을 만나 교유의 폭도 넓혔다. 하지만, 매천은 당시 조정의 실정을 직·간접적으로 접하여 ‘도깨비 세상’이라는 비난을 하면서 결국 은거를 결심하였다. 훗날 그는 자신이 듣고 본 사실을 『매천야록』에 낱낱이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매천에게 서울은 불과 10년 동안 몇 차례 다녀간 곳일 뿐이지만, 그의 일생에 큰 전환점을 준 계기가 되었다.

-
- 3) “始雲卿攻文辭於其鄉，患固而寡聞，人道京師之大，學士之衆也。意欣然如將有獲，徒步半千里北上。”(李建昌, 「送黃雲卿序」, 『明美堂集』 권9, 『문집총간』 권349, p.134c).
- 4) 매천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도서를 구해 보는 곳에서도 알 수 있다. “가산을 기울여 3천 권 책을 비치해 두고 자신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 주야로 책을 읽어 손을 잠시도 놓지 않고 간혹 새벽까지 눈을 붙이지 않았다. 어느 집에 특별한 책이 있는 줄 알면 수백 리도 멀다 않고 찾아가서 필히 빌려다 보고야 말았다[傾家貲儲書三千卷，身處其中，晝夜披閱，手不暫釋，或達曉不寐。聞人家有奇文異書，不遠數百里，必借讀乃已.]” 朴文鎬, 「梅泉黃公墓表」(黃珪, 『梅泉集』 卷首, 『문집총간』 권348, p.403a).
- 5) 매천은 1884년 과거 초시에서 1등으로 뽑혔지만, 한 장석에 의해 낙방되었다. 그리고 조정의 부조리를 경험하여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렸지만, 부친의 강압에 의해 1888년 다시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김택영이 지은 「黃珪傳」과 朴文鎬가 지은 「梅泉黃公墓表」에 상세히 나온다.

기존의 매천에 관한 연구는 현실인식과 대응, 그리고 그의 문학작품인 한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그의 시대인식은 외세의 위협을 받는 시기에 지식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 민족적 측면에서 크게 부각되었다.⁶⁾ 반면, 그의 문학작품은 격동기 시대와 성격을 달리하는 서정적 측면이 면밀히 드러나는 경향이 짙게 드러났다.⁷⁾ 이처럼 지금까지의 연구는 어디까지나 매천의 일평생을 염두에 둔 거시적 평가로 그의 뼈대가 완성된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 살을 붙이지 않을 수 없다. 거시적 측면에서 보는 것으로 한 사람을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매천 일생의 특정한 시기를 중심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매천의 일생을 살펴보면 가장 흥미로운 시기는 서울에 거주할 때이다. 이때는 아직 학문적으로 완숙되지 않은 시기로 그의 일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이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매천의 서울경험을 중심에 두고 살펴보고려고 한다.

매천의 서울경험을 바탕으로 본론을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첫 번째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유람할 적에 지은 시를 중심으로 여기에 드러난 내면을 형상하였고, 두 번째는 서울에서 만난 명사들을 읊은 시를 통해서 서울에서의 교유가 평생에 걸쳐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는 나그네의 처지에서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한 시를 통해 가족에 대한 정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이처럼 서울 경험이라는 제한된 시공간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접근하면, 서울이 매천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었는지 깊이 알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6) 임형택, 「黃梅泉의 詩人意識과 詩」, 『창작과비평』(통권 19호), 창비, 1970.

7) 배종석, 「매천 한시의 서정적 특징 연구」, 성균관대 박사, 2011.

II. 유람 중 내면 형상

매천은 1878년 26세에 처음 상경하였다. 그리고 2년 뒤 1880년 금강산 유람을 떠났다.⁸⁾ 고향인 광양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한 일인데, 서울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서울을 떠나는 길목에서 「동쪽으로 惠化門을 나서며」라는 시를 지었다.

一出都門爽欲飛	한 번 도문 나서자니 상쾌한 맘 날 듯 하고
天風萬里擧霞衣	하늘 바람 만리 불어 노을 옷을 펼럭인데
休論較雨量晴事	비오는 지 맑은지를 헤아리는 일이 없이
且賦登山臨水歸	장차 산에 올라가고 강을 따라 돌아오리
擔負代驢憑僕健	온갖 짐은 나귀대신 튼튼한 종에 맡겨두고
吟呻如鶴見人稀	울조림은 학과 같아 사람 모습 드물겠지
可能無負桑蓬志	사나이의 품은 뜻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祇恐浮由少壯違	젊은 시절 유람으로 어긋날까 걱정이네. ⁹⁾

혜화문은 동문과 북문 사이에 위치하며 ‘弘化門’, ‘東小門’이라고도 불린다. 1397년에 처음으로 세워졌고, 1684년 문루를 새로 지었다. 매천이 이곳을 지나갈 무렵에는 옛 모습이 보존되었는데, 그 뒤 일제강점기 때 도시 확장 계획에 의해 사라지게 되었다. 지금의 모습은 1992년에 복원한 것이다. 이 문을 나서면 수유리를 거쳐 의정부·양주·포천방면으로 갈 수 있었다. 금강산을 향하는 매천은 바로 이 문을 통해 서울을 빠져나갔다.

매천은 이 시에서 서울을 나갈 때의 감정과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읊

8) 이때 매천은 鄭在鍵, 尹相燮, 俱龍淳 등과 함께 갔다.(黃玿, 「出東小門」, 『매천전집』 권3, 호남학연구소, 1984, p.171).

9) 黃玿, 「東出惠化門」, 『梅泉全集』 권1, 호남학연구소, p.368. 같은 시가 「出東小門」의 제목으로 『梅泉全集』 권3(호남학연구소, p.171)에도 있다. 다만, ‘較’는 ‘露’로 ‘祇’는 ‘只’로 되어 있는데, ‘較’와 ‘祇’가 의미상 맞다.

고 있다. 그는 혜화문을 나서면서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복잡하고 답답한 도성을 벗어나는 솔직한 심정이다. 게다가 저물녘이라 하늘에는 온통 붉은 노을이 물들어 있었다. 이 풍경을 도성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는지 수련에서 읊으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혜화문을 두고 안과 밖의 차이가 매천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이다.

함련부터는 여정에 대한 들뜬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짧은 매천에게 금강산 유람은 매우 큰 기대를 가지게 했다. 그는 비가 내리거나 말거나 따지지 않고, 산을 오르고 계곡을 끼며 돌아다니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의 금강산 유람에 날씨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다. 비를 맞으며 걷는 것조차 무릅쓰며 유람을 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여기에 드러난다.

경련에서는 금강산을 유람하는 자신의 모습을 미리 상상하였다. 무거운 짐은 데려간 종이 들 것이니 자신은 맨몸으로 오로지 경치를 둘러볼 수 있겠고, 좋은 경치에 마음이 감동하여 시를 읊조리면 속세를 떠난 학처럼 신선이 될 것만 같았다. 그는 많은 선인들이 금강산 유람을 평생소원으로 여기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금강산에는 마치 신선이 살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으로 상상하였다.

이처럼 매천은 혜화문에서 금강산을 미리 떠올리며 들뜬 기분을 만끽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에서는 자신의 유람이 옳은 건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다. 먼저 자신에게 유람이 합당한 이유로 사나이는 태어나 ‘桑蓬志’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은 세상을 둘러봐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상봉지’는 『禮記』 「內則」에 나오는 내용으로 사내아가 태어나면 뽕나무로 활을 만들고 죽으로 화살을 만들어 사방에 쏘아 넓고 큰 뜻을 가지라는 의미이다. 매천은 이 점을 들어 자신의 유람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유람이 학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스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자신이 서울에 온 목적은 훌륭한 선비들을 만나 견문을 넓히고, 나아가 과거시험에 합격하는 일이었다. 이런 자신에게 유람은 한갓 사치스런 일은 아닌지 진지하게 자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시에서 혜화문을 나간다는 의미는 유람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많은 기대와 흥분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공부를 해야만 하는 현실을 벗어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처럼 매천에게 혜화문은 금강산으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같은 해 매천은 개성에 있는 천마산에도 갔다. 이 역시 그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때 개성이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김택영은 다음의 시를 지어 매천을 전송하였다.

勇往名山者	용감하게 명산 찾아 가는 자
吾見黃雲卿	나는 황운경을 보았으니
長途犯炎熱	먼 길에 찌는 더위를 무릅 쓰고
西上天磨城	서쪽으로 천마성을 오르겠지. ¹⁰⁾

김택영의 「천마산에 유람 가는 매천 황현을 전송하며」이다. 천마산은 개성의 주산이다. 김택영은 유람을 떠나는 매천에게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 이 시를 지어주었다. 유람을 떠나는 길은 ‘멀고[長途]’ 또 ‘찌는 더위[炎熱]’를 견뎌내야 했다. 이 때문에 김택영은 이 시에서 유람이 누구나 갈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 매천의 유람을 돋보이게 하였다. 그래서 힘든 여정을 무릅쓰고 유람을 떠나는 매천에게 ‘용감하다[勇]’는 표현을 한 것이다. 김택영은 이 글자를 시의 첫 자리에 놓고, 또 이 시의 眼字로 삼고 있다.

이처럼 매천은 김택영의 배움을 받으며 개성을 유람할 수 있었다. 이 시를 통해 그가 서울에서 각지의 문사들과 교류하며 각지의 유람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와 같이 유람을 떠날 수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천은 서울에서도 유람을 했다. 한 번은 朴文鎬와 함께 金宗圭의 園亭이 있는 삼청동을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삼청동 진암 김

10) 金澤榮, 「送黃梅泉雲卿(琦)遊天磨山」(1880)三首, 『韶濩堂詩集定本』 권2, 『문집총간』 권347, p.169d.

종규의 원정에 자면서 호산 박문호와 함께 짓다」는 시를 남겼다. 매천이 읊은 당시 삼청동의 모습은 지금의 삼청동거리에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한적한 풍경이다.

漸入人聲少	들어갈수록 사람 소리 적어지고
一溪沙石光	한 시내의 돌과 모래 빛이 나는데
有泉皆可飲	샘물은 여기저기 다 마실 만하고
因樹便爲床	나무에 걸쳐 평상도 만들어 두니
兩岸晴聞屐	맑은 날엔 두 언덕의 발소리 듣고
千峰曉蕪香	새벽녘엔 봉우리들 향을 사른 듯
會須匏子老	이때 마침 늙은 박을 반으로 쪼개
劒樽醉我長	이 잔으로 나를 길이 취하게 하네. ¹¹⁾

삼청동을 깊이 들어갈수록 인적이 드물고 맑은 계곡에는 돌과 모래가 반짝였다. 눈에 보이는 물을 모두 마셔도 될 정도로 청정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김종규의 원정이 있었다. 김종규는 주변의 나무를 이용하여 평상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때 매천과 박문호를 초청하여 함께 앉아 자연의 풍취를 즐겼다.

좋은 날씨에는 이쪽저쪽 언덕에 유람 온 시인묵객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덩달아 흥겨워하겠고, 새벽녘에는 산봉우리에서 구름이 일제히 피어 올라 마치 향을 피우는 것 같은 멋진 풍경을 떠올리기도 한다. 이때 마침 매천의 벗은 이러한 상상을 돋우기라도 하듯이 주변의 늙은 박을 쪼개 술잔으로 삼아 이내 흠뻑 취하게 만든다. 이처럼 삼청동 계곡을 찾아 그곳의 자연에 동화되어 즐거워하는 매천의 풍류 있는 면모가 이 시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하지만 매천이 상경한 더욱 중요한 이유는 과거급제에 있었다. 이는 매천의 부모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매천 역시 여기에 큰 부담을 가

11) 黃玿, 「宿三清洞金振菴宗圭園亭與朴壺山文鎬共賦」(1881), 『매천집』 권5, 『문집총간』 권348, p.492d.

질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그는 1882년 성균 회시에 응시하였다. 하지만 낙방하고 만다.¹²⁾ 이때 매천은 함께 낙방한 박문호와 함께 김택영을 불러 북한산성을 유람하였다. 다음은 「박호산·김창강과 함께 북한산성을 유람하다」이다.

漢陽城北百盤盤	한양성의 북쪽으로 구불구불 돌아드니
千疊雄山一竇關	천만 겹의 웅장한 산 관문은 한 구멍 같고
積氣龍騰空翠外	기운 쌓인 산은 푸른 하늘 밖에 용이 날듯
窮途鳥絕白雲間	길이 다한 곳은 백운 속엔 새도 없는데다
如今鎖鑰將誰待	지금 같은 요해처로 누구를 기다리는가
有此巉巖不可攀	험준한 이 절벽은 기어오를 수도 없겠으니
斗酒春風客無事	나그네는 일이 없어 봄바람에 말술 마시고
重興寺下聽潺湲	중흥사 아래 졸졸 냇물소리 듣는구나 ¹³⁾

매천은 시험에 낙방하고 기분전환을 위해 북한산성을 찾았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구불구불한 산성 길을 걷다보니, 웅장한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자연이 만들어낸 웅장함 속에 인공적으로 만든 산성은 보잘 것 없었고, 눈에 띄는 관문조차 작은 구멍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러한 기운이 가득 쌓여있는 북한산은 마치 용이 날아가는 듯하고, 새들은 산이 너무 높아 올라가지도 못한다고 하였다.

이같이 험준한 북한산은 그 자체가 천연의 요새이건만 여기에다 다시 인공적으로 산성을 만들어 더욱 견고한 성이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험난한 산성의 위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은 단지 나그네로 술 마시

12) 매천은 과거에 낙방하고 「성균 회시에서 낙방하고 짓다[成均會試見罷作]」(1882)의 시를 지었는데, 여기에서 “쥐 잡는 재주 없다고 천리마를 꾸짖으랴, 갈 길 먼 봉새는 오히려 곤을 기약하네(捕鼠技窮寧責驥 搏鵬路遠尙期鯤).”라고 하여 스스로 위로하였다.(黃玹, 「均會試見罷作」, 『매천집』 권5, 『문집총간』 권348, p.492d).

13) 黃玹, 「與朴壺山金滄江澤榮游北漢山城」(1882), 『매천집』 권1, 『문집총간』 권348, p.411b.

며 절에서 쉬면서 한가롭게 냇물소리나 듣는다고 하였다. 매천은 서울을 보호해주는 산성의 위엄이 어떤지 직접 본 느낌을 솔직하게 읊었다. 그렇지만, 시험에 떨어진 자신에게는 산성의 위엄도 부질없다. 마지막 연에서 자신은 지금 ‘無事’라고 읊조리며 허전한 마음을 드러내며 부질없이 흘러가는 냇물 소리를 들으며 위로하고 있다.

이때 북한산성을 함께 유람한 김택영은 다음 시를 지어 매천과 박문호를 위로하였다.

聞君不利南宮試	남쪽 궁궐 시험에서 불리했다 들었다니
携我同來北漢關	나를 끌고 북쪽 관문 함께 오자 했는가
可笑主司無計策	가소롭다! 시험관은 아무 생각 없는 건지
盡拋奇貨向空山	좋은 보화 다 버려서 빈산으로 가게 하네. ¹⁴⁾

김택영은 매천과 박문호가 시험에 낙방했다는 얘길 듣고 위로를 할 겸 함께 북한산성을 따라갔다. 그는 이들의 재능을 ‘좋은 보화[奇貨]’라고 표현하면서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훌륭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 예조의 시험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였다. 특히 마지막 구의 ‘空山’은 예조의 잘못된 판단을 뜻하기도 하지만, 시험에 떨어진 허탈한 마음을 비우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김택영의 시를 통해서 매천이 마음을 달래려 벗과 북한산성을 찾은 것을 알 수 있다. 매천은 북한산의 웅장한 모습을 보며 감탄하였고, 함께 간 벗이 있어 낙방의 아쉬움도 충분히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이들의 유람은 북한산성에 그치지 않았다. 그 길로 곧장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까지 갔다. 백운대 정상 아래는 가파른 바윗길이기 때문에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이다. 매천은 28세의 청년이었지만 이곳에서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김택영과 박문호만 정상에 올랐다.¹⁵⁾ 평소 유람을

14) 金澤榮, 『同壺山梅泉遊北漢山城』(1882), 『韶濩堂詩集定本』 권2, 『문집총간』 권347, p.172d.

즐기는 그였지만, 가파른 백운대는 차마 오를 수 없었던 것이다.

매천은 서울에 있는 동안 벗과 함께 삼청동, 북한산성, 북한산 등을 찾아갔다. 그는 그곳에서 벗들과 술도 마시고 경치도 감상하며 기분전환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향에서는 쉽게 갈 수 없는 금강산과 천마산에도 갈 수 있었다. 그에게 서울은 전국으로 갈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처럼 유람을 다니며 건문을 넓히길 좋아하였지만, 서울에 온 처음의 목적을 간과할 수 없었다. 그래서 「東出惠化門」에 서처럼 유람으로 인해 부지런히 학업에 정진해야할 시기가 어긋나지는 않을지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또한 그는 가파른 백운대에 위험을 무릅쓰고 오르는 것보다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 자연과 어울리는 유람을 위주로 했다.

Ⅲ. 名士들과의 교류

이 장에서는 매천이 서울에서 만난 명사들을 소재로 읊은 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매천은 1878년 처음 서울에 올라와 남산 기슭의 注洞에 머물면서 맨 먼저 秋琴 姜瑋(1620~1884)를 찾아갔다. 그는 강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의 시와 인격에 관한 얘길 듣고 이미 마음속으로 경도되어 있었다. 매천은 강위를 만난다는 기대에 부풀어 다음의 시를 읊었다.

我不見先生	내 추금 선생을 뵈 적이 없었지만
思之如曾見	마음속엔 일찍이 뵈 것도 같은데
預想一見後	한 번 뵈고 난 뒤를 미리 상상하면
當作如何戀	마땅히 어떻게 사모해야할는지...

15) 김택영이 지은 시 「同壺山登白雲臺絶頂」의 원주에 “梅泉憚險不能上”라고 나온다.(金澤榮, 「同壺山登白雲臺絶頂」(1882), 『韶濩堂詩集定本』 권2, 『문집총간』 권347, p.172d).

遠客不歸去	멀리서 온 손은 돌아가질 못하고
芳草滿庭院	어린 풀들 정원 가득 돌아났는데
南山風雨夕	남산에 비바람 치는 저물녘이면
繞床千百轉	평상 둘러 천 번 백 번 맴도는구나. ¹⁶⁾

매천의 「추금 강위 선생을 곧 만나게 되어 짓다」이다. 매천은 일찍이 광양에서 成蕙永을 통해 강위의 시를 보고, 그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¹⁷⁾ 이때부터 그는 마음속으로 강위에게 경도되어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그러다가 서울에 오게 되자, 곧바로 강위를 찾아간 것이다.¹⁸⁾

이 시는 ‘先生’, ‘曾見’, ‘預想’, ‘戀’, ‘遠客’, ‘芳草’, ‘風雨’, ‘千百’ 등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고 있다. ‘선생[先生]’은 강위를 말하고 있다. 매천이 강위를 선생이라고 부른 것은 학덕과 나이가 모두 자신보다 높아 공경의 뜻으로 일컬은 것이다. ‘일찍이 보았다[曾見]’는 것은 매천이 강위에게 경도된 정도를 나타내준다. 실제 강위를 만나지 않았는데 만난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평소에도 늘 그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리 상상한다[預想]’는 것은 강위와 직접 만난다는 것에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표현이다. 역시 강위에게 마음이 경도된 정도를 나타내었다. ‘사모한다[戀]’는 것은 강위에 대한 감정 표현으로 앞의 내용을 이 한 단어가 모두 담아내고 있다. 특히 매천은 ‘어떻게 사모할 것인가’ 의문형으로 나타내었는데, 이는 강위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 黃玿, 「將見姜秋琴先生瑋」(1878), 『梅泉全集』 권3, 호남학연구소, p.153.

17) 매천이 성혜영과 처음 만난 것은 1876년 이었다. 이때 성혜영은 서울에서 추금 강위에게 시를 배우고, 그 외 여러 문사들과 교유한 직후에 매천을 찾아갔다.(黃玿, 「重陽後, 五, 六日, 河東鎮巖人, 成蕙永, 字彩五, 號南坡, 來訪. 是湖海夙聞者, 今夏遊京師, 學詩於姜秋琴文瑋, 且益習近體, 爲余說秋琴詩累百編. 因及李藕船·金阮堂諸名家, 皆可喜可誦. 余聞秋琴久矣. 因經宿連酬.」, 『梅泉全集』 권3, 호남학연구소, p.88).

18) 기태완은 매천이 1878년 상경한 것을 오로지 강위를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기태완, 『황매천시연구』, 보고사, 1999, p.38).

‘멀리서 온 객[遠客]’은 자신을 두고 표현한 것이다. 매천은 서울에서 강위를 만나지 못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읊었다. 그리고 ‘방초[芳草]’는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로 봄에 새싹이 돋아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때이다. 여기에서 매천이 타지인 서울에 있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봄인데도 강위를 만나기 위해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

‘비바람[風雨]’은 방초 가득한 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매천의 심정을 더욱 서글프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것이 ‘천백 번[千百]’이라고 과장해서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매천은 이처럼 그리워하던 강위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매천은 강위를 통해 서울의 명사들을 두루 알 수 있었다. 당시 강위는 남산 일대 소론 계열의 선비들이 주축이 된 南村詩社의 맹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매천도 이 모임에 참여하였다. 강위의 『南村晨夕集』에 실려 있는 시를 통해 이 모임에 참여한 인물은 모두 48명이나 된다.¹⁹⁾ 또 매천이 서울에서 교유한 대부분의 명사는 이 남촌시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李建昌(1852~1898), 金澤榮(1850~1927)을 비롯하여 呂圭亨, 李建昇, 鄭萬朝, 鄭範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매천은 서울에서 이견창, 김택영과는 더욱 깊이 사귀어 문장이 크게 진취되어 국내에서 명성을 드날렸다.²⁰⁾ 특히 둘 중에서도 이견창에게 더욱 마음이 쏟렸다.²¹⁾ 매천이 이견창을 찾아간 상황을 김택영은 다음

- 19) 배기표, 「추금 강위의 해외기행시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8, pp.47~49 참조. 이 논문에서는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姜範植筆寫本 『古歡堂收艸』를 새롭게 찾아내어 남촌시사에 참여한 인물이 모두 48명인 것을 확인했다.
- 20) 朴文鎬, 「梅泉黃公墓表」, “弱冠後出遊京城, 遍交一世名士, 與姜古權璋·李甯齋建昌及金滄江相師友, 尤以李·金託爲神交, 自是文章大進, 聞于國中.”(黃玹, 『매천집』 卷首, 『문집총간』 권348, p.402c).
- 21) 黃瑗, 「先兄梅泉公事行零錄」, “生平文字之交, 以寧齋·滄江二公爲最, 而於寧齋傾向尤深.”(黃玹, 『매천집』 卷首, 『문집총간』 권348, p.406d).

과 같이 기록하였다.

당시 校理 李建昌의 문장이 관료들 중에 으뜸이어서 나라 안의 명사들이 姜 璋로부터 그 이하가 그와 從遊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황현이 자신의 시를 가지고 가서 만나니, 이진창은 그 시를 보고 크게 칭찬하였다.²²⁾

이진창은 15세의 어린 나이로 과거에 급제해 19세에 홍문관에 들어갈 정도로 수재였다. 이 때문에 당시 서울의 명사들은 대부분 이진창과 교유하기를 원하였다. 매천 역시 그와 교유하기 위해 자신이 지은 시를 폐백으로 삼아 찾아갔다. 이 둘이 처음 대면하는 과정에는 재미난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다음은 매천의 동생 황원이 기록한 내용이다.

처음 이진창을 만났을 때 그의 체구가 작은 것을 보고는 대뜸 “주인은 어디 갔소?”라고 하였다. 이에 이진창이 “내가 주인이오.”라고 하자, 매천은 “아니오.”라고 거부하였다. 그래서 이진창이 “아니, 그렇지 않소.”라 하니, 매천은 “주인은 반드시 흰칠한 팔척장신일 터인데, 지금 보니 육척도 다 되지 못하니, 주인이 아닌 게 분명하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공이 껄껄 웃었다.²³⁾

매천은 이진창과 처음부터 뜻이 통하여 神交를 맺고 평생지기가 되었다. 나중에 이진창의 부고를 뒤늦게 받고 이미 장례식이 지나서 이듬해에 800리를 달려가 곡하였다. 이때 시와 제문을 지어 서글픈 마음을 표현하였는데, 제문에서 ‘고금에 없던 知己로 속마음을 다해서 충고도 해 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도 해주었다’²⁴⁾고 이진창을 회상하였다.

22) “時李校理建昌文章冠薦紳，國中名士，自姜璋以下，莫不從遊。玆贊詩以見，建昌見詩大稱之。”(金澤榮, 『黃玆傳』, 『韶濩堂文集定本』 권9, 『문집총간』 권348, p.403c).

23) 黃瑗, 『先兄梅泉公事行零錄』, “始訪寧齋李公，見其短小，故問‘主人爲誰?’李曰, ‘我也.’ 公曰, ‘非也.’ 李曰, ‘非非也.’ 公曰, ‘主人必巍巍長八尺，而乃今不滿六尺，其非也決矣.’ 李爲之大笑.”(黃玆, 『梅泉集』 卷首, 『문집총간』 권348, p.406d).

24) “疇無師友，疇無知己。今古茫茫，疇公之似。箴我箴我，盡抽己有。亦復賞我，舌

그 뒤 매천은 이견창을 꿈에서 보고는 시름을 이기지 못하여 시를 읊었다. 이견창을 향한 매천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夢爲無上妙	꿈은 더없이 묘한 것이 되어서
乃見既骨人	이미 고인이 된 사람도 보이는데
尤奇貌不變	더욱 기이한 건 모습이 안 변해서
尙帶昔年春	여전히 옛날의 젊음 띠고 있었네
論文猶夙好	논한 문장은 예전처럼 좋았으나
語多頗失倫	말이 많아 어긋난 것도 많았는데
約臂問我瘦	내 팔 잡고 수척하다 걱정해주시
孰謂夢非眞	누가 꿈이 진실하지 않다 하리오. ²⁵⁾

1905년에 지은 「영재를 꿈에서 보고 짓다」이다. 총 4수 중 세 번째 수이다. 이 해에 김택영은 상해로 망명을 갔다. 매천은 처음에 김택영을 따라 상해에 갈 계획을 세웠지만, 집안일로 인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²⁶⁾ 이런 상황에서 11월에 을사늑약이 일어나자 매천은 매우 슬퍼하며 「聞變三首」를 짓고, 죽은 다섯 명의 절의지사를 읊은 「五哀詩」도 지었다. 이즈음 꿈에서 이견창을 꾸게 되었다. 이견창은 죽은 지 이미 7년이 나 지났지만 여전히 매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시에서는 ‘夢’, ‘骨人’, ‘不變’, ‘春’, ‘論文’, ‘語多’, ‘我瘦’, ‘眞’ 등의 시어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고 있다. ‘꿈[夢]’은 죽은 이견창과 매천이 다시

不容口.”(黃玆, 「祭寧齋李公文」(1899), 『매천집』 권7, 『문집총간』 권348, p.519c).

25) 黃玆, 「夢寧齋」(1905), 『매천집』 권4, 『문집총간』 권348, p.478a.

26) 매천은 「聞金滄江去國作」(1905)의 서문에서 김택영이 편지에서 “소주와 절강 사이에서 노년을 마칠 수 있다면 섬나라 아이들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한 것을 보고는 가족 몰래 여비를 준비하여 가을에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혈혈단신의 종가의 종질이 죽어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다.(黃玆, 「聞金滄江去國作」(1905), 『매천집』 권4, 『문집총간』 권348, p.477c).

만날 수 있게 해준다. 매천은 꿈을 통해서 초현실적인 봉우의 정을 이뤄 내고 있다. ‘죽은 사람[死人]’은 이견창이다. 꿈속에서는 산 사람, 죽은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매천이 이견창을 만났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다만, 이견창의 모습이 예전과 같아 의외였다.

‘변하지 않은[不變]’ 것은 이견창의 모습이다. 이견창은 죽은 지 이미 7년이나 지났건만, 예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이승에서 파리 해져만 가는 자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특히 ‘봄[春]’은 청춘을 의미하는 말로 여기에서는 이견창에게 죽기 전의 파리한 모습이 없고 다시 청춘이 된 것 같다고 하였다. 현실세계에서 괴로워하는 자신과는 대조적이었다.

‘문장을 논의한다[論文]’는 생전의 대화를 꿈속에서도 나누는 변함없는 모습을 읊고 있으며 ‘말이 많다[語多]’는 것은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꿈이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쌓여서 둘은 많은 대화를 나눴다. 매천과 이견창 사이는 幽明이 달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내가 파리하다[我瘦]’는 것은 매천의 현재 모습이다. 평생의 지기였던 이견창은 죽고, 김택영은 고국을 떠났으며 게다가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국권이 일본에 넘어간 상황이었다. 어지러운 현실세계에 매천의 정신과 육체는 나날이 파리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도리어 저승에 있는 이견창이 매천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워 하였다. ‘진실[眞]’은 꿈이 현실과 같다는 의미로 매천은 “나의 현재 모습을 죽은 이견창이 어떻게 알고 물어볼 수 있겠냐?”며 반문하며 꿈이 진실하다고 하였다. 꿈이 진실하면 그 속에 있는 이견창도 허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천과 이견창의 교류는 생사를 초월한 것임을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매천의 서울생활은 이러한 평생지기를 얻게 된 계기가 되었다.

매천은 서울에서 威堂 申櫨(1810~1884)·香農 申正熙(1833~1895) 부자와도 교류하였다.²⁷⁾ 신현과 신정희는 모두 대장을 지낼 정도로 당시 서울에서 권세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매천보다 연배도 20살 이상이나

많았다. 하지만 매천은 이들과도 두터운 신의를 가지고 교류하였다.

申香農이 大將에 임명되었을 때 위당공이 손을 대하면서 스스로 기뻐하여 말하기를 “이 직임이 나를 떠난 지 10년 만에 다시 왔구려.” 하자, 매천이 마침 그 자리에 있다가 정색하고 말하기를 “공께서는 오늘 마땅히 두려운 마음을 품어서 國恩에 보답하기만을 생각해야 할 터인데, 어찌 다시 온 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위당공이 사과하였다.²⁸⁾

인용문은 매천이 신헌·신정희 부자를 대하면서도 자신의 올곧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여기에서 권세가의 앞에서 평소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매천의 성격과 이에 선뜻 사과한 신헌의 호방한 성격이 드러난다. 매천은 자신의 신념을 인정해 준 신헌·신정희 부자를 남다르게 생각하며 교류하였다.

다음은 매천이 壺山 朴文鎬(1846~1918)²⁹⁾와 함께 향농 신정희 대장을 모시고 술을 마시면서 지은 시이다.

彤墀禮樂怨斜暉	궁중의 예와 악이 사라짐을 슬퍼하건만
依舊長安墨澆衣	도성 안은 여전히 검게 옷을 물들이고
滄海塵生那易問	창해에 이는 먼지 어찌 쉽게 물으랴만
將軍酒熟未輕歸	장군의 익은 술에 선뜻 돌아가진 못하는데
廣庭調馬金沙軟	넓은 뜰에 말을 몰아 금빛 모래 부드럽고

-
- 27) 黃瑗, 「先兄梅泉公事行零錄」, “在京師時, 游於申公威堂·香農父子之間.”(黃玪, 『매천집』 卷首, 『문집총간』 권348, p.406d).
- 28) 黃瑗, 「先兄梅泉公事行零錄」, “申香農之拜大將也, 威堂公對客自喜曰; ‘此任去吾十年, 今更來.’ 公適在座, 正色言曰; ‘公當今日, 宜懷恐懼, 以報國恩爲心, 豈可以更來爲誇耀乎.’ 公謝之.”(黃玪, 『매천집』 卷首, 『문집총간』 권348, p.406d).
- 29) 박문호는 「梅泉黃公墓表」에서, “내가 젊었을 적에 漢京에서 매천과 처음 알게 되어 마침내 忘形交을 맺어 3, 4년 동안 함께 술 마시고 시문 지으며 거리낌 없이 노닐었다.[始余少時, 與梅泉於漢京中相識, 遂定爲忘形之交, 放浪文酒間者三四年.]”라고 회상하고 있다.

曲檻澆花玉溜飛	굽은 난간 꽃이 젖어 물방울이 떨어지니
他日訪君休負約	훗날 그댈 찾아오면 약속 저버리지 마세요
紫霞山下月臨扉	자하산 아래 달빛이 사립 비출 때입니다 ³⁰⁾

앞부분에서는 서울의 당시 세태를 읊고 있다. 궁중에서는 이미 예와 악이 석양에 지는 해처럼 사라져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검게 물들여서 입고 다닌다. 이러한 인정세태는 오랜 시간이 흘러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광양에서 자란 매천에게 당시 서울은 전통이 무너지가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관료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책임을 신정희에게 돌리지 않았다. 매천은 다만 향농 신정희의 집에 익은 술을 핑계 삼아 이 문제를 넘겨 버렸다.

매천은 신정희의 집을 둘러보았다. 뜰에는 말을 조련해서 부드러운 모래가 깔려있었고, 난간 곁의 꽃에는 덜 마른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넓은 뜰에서 꽃에 달린 물방울까지 곳곳의 풍경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자하산에 달이 떠오를 때 또 찾아오리라는 약속을 하였다. 매천은 신정희와 함께한 술자리를 미화하면서 다음번 약속까지 하였다.

매천은 신헌 부자와 교류하면서 고금의 시문을 비평하고, 천하와 당세의 변화에 대한 얘기도 나누면서 식견을 넓혀나갔다.³¹⁾ 게다가 1883년 전라도智島에 유배 간 신정희를 만나러 200km도 넘는 거리를 바다까지 건너가며 찾아가기도 하고,³²⁾ 1884년에는 신헌을 제사하는 「哭威堂申大

30) 黃玑, 「同朴壺山李丹農建初陪香農元戎小飲」(1882), 『매천집』 권1, 『문집총간』 권348, p.411c.

31) “余昔在京師，嘗從于霖·景模·泰鄰諸人之後，會于所謂香農書室者，斫鮮啜麵，以佐酒，或持盃，不能飲口，刺刺評古今詩文，及縱談天下當世變遷之故。”(黃玑, 「靈濱唱酬錄跋文」, 『매천전집』 권4, 호남학연구소, 1984, p.133).

32) 지도로 가는 도중 매천은 「將往智島訪香農公謫居雨中過鶴橋作」를 지었다. 한편 매천이 신정희를 만나러 간 것을 김택영은 “其於生平所好者之遷謫死喪，徒步走千里，存吊者爲多。讀書遇忠臣志士困阨痛冤之事，未嘗不汪然泣下.”라 하여 충절이 있는 인물을 찾아간 것이라고 하였다.(金澤榮, 「黃玑傳」

將」을 짓기도 하였다. 매천은 이 만사의 끝에 “애영을 끝까지 누린 게 눈 가득 찬란하도다[溢眼哀榮爛始終].”라고 하여 『논어』 「子張」에서 子貢이 孔子를 일러 “살아 있을 때에는 영광으로 여기고, 돌아가시면 모두 슬퍼한다[其生也榮 其死也哀]”는 고사를 인용하여 신현을 추앙하였다.

매천이 서울에서 교유한 명사를 만나러 지도에 간 것은 그 뒤에도 또 있었다. 雲養 金允植(1835~1922)을 만나러 갔다. 김윤식은 1895년 閔妃事件으로 인해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1901년 智島에 移配되었다. 매천은 유배지에서 김윤식과 두보시 「藍田崔氏庄」의 운을 따서 서로 수창하였다.

已驚下榻禮從寬	의자 내린 후한 예우 이미 놀랄만하였는데
又謝聯觴語盡歡	또 술잔을 함께하며 좋은 말씀 감사하니
百謫光陰惟老筆	많은 유배 세월 동안 필력만이 노련해져
一生風味尙儒冠	일평생의 풍미로는 선비 갓을 숭상하고
嘉賓助譔龍山暮	좋은 손은 용산머리 저물 때쯤 웃음 주고
儉歲關心鴈戶寒	흉년든 해 떠돌이 삶 가난함은 맘 아픈데
一任東籬花稍晚	동쪽 울에 꽃이 조금 늦게 핀다 하더라도
不妨霜後久供看	서리 온 뒤 오랜 시간 감상에는 무방하리 ³³⁾

시의 제목은 「지도 둔곡에서 9일 동안 김윤양 상서를 모시고 두보의 「남전최씨장」이라는 시의 운자를 뽑아 쓰다」이다. 매천은 김윤식이 자신을 예우한 것을 下榻의 고사에 비유하였다. 하답은 後漢의 陳蕃이 豫章太守로 있으면서 徐穉가 올 때만 특별히 의자를 내려놓았다가 그가 가면 다시 걸어 놓았다는 고사로³⁴⁾ 특별예우를 해준 셈이다. 게다가 술잔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낮빛으로 좋은 말까지 해주어 매천으로서는 매우 감사한 일이었다.

(1912), 『韶漢堂文集定本』 권9, 『문집총간』 권347, p.341a).

33) 黃玿, 「智島屯谷九日陪金雲養尙書拈杜詩藍田崔氏庄韻」(1902), 『매천집』 권4, 『문집총간』 권348, p.470b.

34) 『後漢書』 卷83, 「徐穉列傳」.

매천은 김윤식의 오랜 유배생활을 한편으로 안타까워하면서도 유배지에서 필력이 향상되어 품미 있는 선비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평했다. 그리고 쯤나라 孟嘉의 고사³⁵⁾처럼 손님이 찾아와 기쁘게 해주도 하고, 흉년이 든 때엔 괴로운 생활도 있을 것이라며 김윤식의 유배생활을 읊었다. 매천은 ‘늦게 핀 꽃은 서리가 내린 뒤에도 감상할 수 있다’는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김윤식에게 다시 인정을 받아 오래도록 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위로하였다.

이처럼 유배지에 있는 김윤식을 찾아갈 정도로 이들의 교유가 마음속 깊이 두터운 신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윤식 역시 매천을 두고, “매화를 보니 절의지사 생각나서, 저 멀리 백운의 고장 바라보네(見梅懷節士, 遙望白雲鄉.)”³⁶⁾라며 깊은 정을 드러내었다.

평생지기인 김택영의 경우 자신이 문필활동에 종사하고 나서부터 함께 문자를 주고받은 지기로 우리나라에서는 天游子 朴文遠(1805~1888) · 寧齋 李建昌(1852~1898) · 修堂 李南珪(1855~1907) · 壺山 朴文鎬(1846~1918) · 梅泉 黃玟(1855~1910) · 存齋 徐昌東(?~1911) · 河謙鎭(1870~1946) 약간 명을 꼽았다.³⁷⁾ 특히 그는 “매천의 시는 문장보다 몇 배나 뛰어나서 참으로 타고난 재주라 할만하다.”³⁸⁾라고 크게 인정하였고, 매천을 위해서 그 문인과 함께 노닐던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의 시를 간행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³⁹⁾ 그리고 『매천집』 간행에 있어서도

35) 맹가의 고사는 진나라 桓溫이 중하게 여기는 맹가와 술을 마실 적에 바람이 불어 맹가의 모자가 떨어졌다. 맹가는 이것도 모르고 화장실을 가자, 환온은 다른 신하를 시켜 시를 지어 놀리게 하였다. 이에 맹가가 돌아와서 보고 웃으며 답시를 지었다.(『晉書』 卷98, 「王敦桓溫列傳」).

36) 金允植, 「見梅懷人寄黃石田瑗」, 『雲養續集』 권1, 『문집총간』 권328, p.545c.

37) “自余操觚以來, 所與爲文字知己者, 於本邦有朴天游·李寧齋·李修堂·朴壺山·黃梅泉·徐順之·河叔亨若干人而已.”(金澤榮, 「書周晉琦詩集後」(1925), 『韶濩堂集借樹亭雜收』 권4, 『문집총간』 권347, p.500b).

38) “黃梅泉之詩, 長於文數倍, 眞所謂別才也.”(金澤榮, 「雜言九」(1918), 『韶濩堂文集定本』 권8, 『문집총간』 권347, p.324d).

39) “近爲亡友黃梅泉, 馳書於其門人及從遊者, 勸刊其詩.”(金澤榮, 「開城家稿序」

깊이 관여하였다. 김택영은 1910년 매천이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의 시를 지었다.

麥秀歌終引酖卮	麥秀之嘆 끝내고서 독 술잔을 잡아드니
五更風雨泣山魑	밤새 비바람 속 산 도깨비 울었는데
誰知素定胸中義	누가 알았으랴! 가슴속 의를 정한 것이
已在嘒嘒十咏時	『병화십절』 읊었을 때 이미 있었음을... ⁴⁰⁾

기구에서 ‘麥秀歌’는 나라가 망하고서 부른 노래로 여기에서는 매천이 한일합방 소식을 듣고, 그날 밤에 지은 절명시 4수를 말한다. ‘독 술잔 [酖卮]’는 매천이 자결하기 위해 마신 대량의 아편을 탄 沙蔘燒酒잔이다. 김택영은 매천이 자결한 밤에 있었던 일을 기구에서 모두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날 밤의 분위기를 승구에서 나타내었다. 밤새도록 비바람이 몰아치고 산에서는 도깨비들이 울어대고 있었을 것이라고 읊었는데, 죽음을 결심한 매천의 복잡한 심경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김택영은 1906년 매천이 「題屏畫十絶」을 지었을 당시 이미 자결한 결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제병화십절」은 嘒嘒병풍의 그림에 지은 절구 10수를 말한다. 여기에서 매천은 역대 절의지사 열 명을 읊었다. 김택영은 매천이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 시를 떠올렸다. 평소 매천에 대한 깊은 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상으로 매천이 서울에서 교유한 명사들 중에 대표적인 몇 명을 예로 들어 살펴보았다.⁴¹⁾ 매천은 이들과 神交를 맺기도 하고, 두터운 信義를 지니고 있어 명사를 만나기 위해 유배지까지 찾아가기도 하였다. 물

(1912), 『韶濩堂文集定本』 권3, 『문집총간』 권347, p.256a).

40) 金澤榮, 「聞黃梅泉殉信作」(1910), 『韶濩堂詩集定本』 권5, 『문집총간』 권347, p.204a.

41) 그밖에 丹農 李建初, 荷亭 呂圭亨(1849~1922), 茂亭 鄭萬朝(1858~1936), 耕齋 李建昇(1858~1924), 經香 韓章錫(1832~1894), 玉垂 趙冕鎬(1803~1887) 등과도 시문을 주고받았다.

론 이들 역시 매천이 상경한 목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또 평생토록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하며 지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IV. 고향에 대한 그리움

집을 떠나 나그네로 지내다 보면 자연스레 두고 온 가족이 그리기 마련이다. 매천은 비루한 시골의 풍습을 벗어나기 위해 집을 떠나 왔지만, 두고 온 가솔에 대한 걱정과 향수에 젖어들기도 했다. 이 장에서는 서울을 가기 위해 집을 떠난 순간부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매천의 정감을 살펴보겠다.

我親慈過人	내 아버이 자애는 남보다 더해
幾忘兒痴魯	자식의 어리석음 거의 잊으셨지
苦心督詩書	시와 서경 읽히느라 마음 쓰셨고
謬望就門戶	집안 세울 거라 공연히 기대하며
謂言立揚責	말씀하길 “입신양명 이루는 길이
詎止橫圭組	어찌 고관대작 되는데 있겠느냐
藹藹終南下	종남산 아래쪽은 화기가 애애해
通國人文聚	온 나라의 문인들이 모여 있느니
游學倘底成	유학하여 혹시라도 성취한다면
是兒眞幹蠱	이 아이가 진정 가업 계승하리”하시니
托大難遽唯	큰 기대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
只自中焉鏤	다만 저냥 마음속에 새겨 두었네
離膝旣云感	슬하를 떠나 이미 슬퍼하겠지만
墜訓重爲懼	가르침 못 지킬까 더욱 두렵구나
回頭語諸弟	머리 돌려 아우들에게 말하기를
吾輩有賢父	“우리에겐 어진 부모 계신다”하네 ⁴²⁾

42) 黃玿, 「辭家」, 『梅泉集』 권5, 『문집총간』 권348, p.493a.

서울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나며 지은 시이다. 이 시가 지어진 연도는 기록된 것이 없지만, 내용의 정황상 처음 서울에 올라간 1878년에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에서 매천은 부모님이 자기에게 거는 기대와 서울에 가는 목적,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을 차례로 읊고 있다.

매천은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리며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⁴³⁾ 이 때문에 그의 집에서는 서울에 유학 가서 여러 문인들과 교류하며 학업을 한다면 성취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여기에서 성취는 바로 과거시험을 두고 한 말이다. 매천은 이런 부모님의 기대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지만, 마음 속 깊이 새겨두며 기대에 부응하려고 다짐한다. 또한 그는 집에 남아 있는 黃璉(1862~1889)과 黃瑗(1870~1944) 두 동생에게 어진 부모님의 뜻을 잘 따르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매천은 이 시에서 집을 떠나면서 느낀 감정을 진솔하게 읊었는데, 특히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 해 여름밤 매천은 서울에서 하늘을 보며 고향을 그리워하였다. 다음 시는 매천의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진솔하게 읊었다.

雲合雲離月方出	구름 꺾다 개이자 달이 막 나왔는지
四山冥冥樹如漆	사방 산은 어둑어둑 나무숲은 칠흑 같네
星角紺靑定還搖	또렷한 남색 별 빛 가만있다 또 흔들리고
河影漸長橫練正	은하수는 점점 길어져 비단을 비껴 편듯하네
蝙蝠繞簷忽自落	처마를 감아 돌던 박쥐는 돌연 저냥 떨어져
倒飛走入匏花密	거꾸로 날아 뽕뽕한 박꽃 사이 들어가는데
人語寥寥松作燈	사람들은 관솔불 밝혀 고요하게 있을 테고
全家麥飯誇腹實	온 가족이 보리밥 먹고 배부르다 자랑하겠지. ⁴⁴⁾

43) 黃瑗, 「先兄梅泉公事行零錄」, “幼在塾, 文理早融, 能代師教同隊, 蓋讀史略時, 能教通鑑, 讀通鑑時, 能教孟子, 讀孟子時, 無書不能教. 十一歲, 陪里中長老之讌, 始作詩曰鴈聲初落遊人席, 長老皆爲之驚. 十四五歲, 赴本道試, 落筆生風, 試場諸生聚觀如堵, 無不嘖嘖稱奇.”(黃玆, 『매천집』 卷首, 『문집총간』 권348, p.405a).

44) 黃玆, 「漢京注洞寓舍, 夏夜憶鄉作」(1878), 『梅泉集』 권1, 『문집총간』 권348,

1878년에 지은 「서울 注洞에 우거하고 있는 집에서 여름밤 고향을 생각하며 짓다」이다. 주동은 동대문 밖 30리 지점에 있는 불암산 아래의 마을이다. 매천이 처음 서울에 도착해서 강위를 만나기 위해 주동에 있을 적에 지은 시이다.⁴⁵⁾ 24살의 매천에게 낯선 서울의 밤 풍경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 시는 ‘月’, ‘樹如漆’, ‘星’, ‘河’, ‘蝙蝠’, ‘匏花’, ‘松作燈’, ‘麥飯’ 등의 시어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이 시어들은 모두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시 속에서 고향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달빛[月]’은 숲의 모습을 어렴풋이 형체만 보이게 할 뿐이다. 이 선명하지 않은 형체는 보는 사람에게 온갖 상상력을 일으키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낯선 곳에서 지인도 만나지 못하고 쓸쓸히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기에 가족이 있는 고향이 간절히 생각났다. 이때 ‘칠혹 같은 나무숲[樹如漆]’은 매천의 고향에 대한 상상력을 더욱 불러일으키게 했다.

‘별[星]’은 관습적으로 사용되었다. 나그네가 고향을 그릴 때나 여인이 보고 싶은 남을 그릴 때, 즉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그리워 할 때 흔히 밤하늘의 달을 매개체로 삼기 때문이다.⁴⁶⁾ 매천 역시 관념화된 밤하늘의 달이나 별을 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었다. 특히 선명했던 별빛이 가물거리고, ‘은하수[河]’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길어져 비단을 비껴 펼친 모습 같다고 하였다. 서울의 밤 풍경이 시인과 고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쥐[蝙蝠]’는 자신의 처량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처마를 날다가

p.410b.

45) 기태완은 이때 매천이 주동에 있는 洪基正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였다.(기태완, 『황매천시연구』, 보고사, 1999, p.38).

46) 白光勳은, “통소 소리 이십사교 위에 뜬 저 밝은 달로, 강남땅에 있는 아내가 먼 이별에 상심하리.[一聲二十四橋月, 人在江南傷遠情.]”라고 하면서 고향에 있는 아내가 달을 보며 자신을 그리워 할 것이라고 읊고 있다. (白光勳, 「洛中秋夜」, 『玉峯詩集』上, 『문집총간』 권47, p.110b).

지친 박쥐가 박꽃이 뻑뻑이 핀 지붕 아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여기며 집 떠난 자신과 비교하였다. 여기에서 ‘박꽃[萼花]’은 매천의 고향집에도 있기 때문에 고향을 떠올리는 매개체가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박꽃으로 날아간 박쥐는 매천의 심정을 더욱 처량하게 만들었다.

‘관솔불[松作燈]’과 ‘보리밥[麥飯]’은 매천이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떠올랐다. 관솔불에는 동네 사람들의 정겨운 모습이 포함되어 있고, 보리밥에는 가족의 웃음이 있을 것이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상상을 하게 만들고, 상상 속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그려내게 했다. 나그네 처지가 되어 가족을 생각하는 매천의 진솔한 정감이 드러난 시라고 할 수 있다.

매천은 고향을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자식으로서 부모를 봉양하지 못한 것에 늘 죄송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다음은 부친의 편지를 받고 마음에 이는 정감을 읊은 시이다.

發書曾幾日	서신을 보낸 지 얼마나 되었는지
是我入山時	그때는 내가 금강산으로 갈 때인데
插案情先恟	책상에 꽂힌 편지 걱정부터 일고
披緘眼更遲	봉투 뜯으며 눈은 다시 머뭇하네
辭詳欣室穩	말씀 자세해 집안 평온 기쁘지만
字瘦恐親衰	글자 파리해 부친 늙음 두렵구나
不知復爲客	다시 나그네 된 것 알지 못하시고
惟戒緩歸期	돌아갈 기일 늦어지는 것만 깨우치셨네. ⁴⁷⁾

1880년에 지은 「처소에 이르러 부친의 서신을 삼가 받아보고 짓다」이다. 이 해에 매천은 서울에 있다가, 가을에는 금강산 유람을 떠났다. 음력 8월 18일 혜화문을 나가면서부터 9월 14일까지 27일간의 여정이었다. 그가 유람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책상에는 부친이 보낸 편지가 꽂혀 있었다.

47) 黃玿, 「抵寓拜家大人書」(1880), 『梅泉全集』 권1, 호남학연구소, p.381.

매천은 갑작스런 부친의 편지를 받고 걱정부터 일기 시작했다. 후시 집안에 나쁜 일이 생겨 편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봉투를 뜯어볼 때 머뭇거리면서 조심스러워했다. ‘걱정[悵]’으로 인해 ‘머뭇거리[遲]’는 과정은 당시 매천이 객지에서 가족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이윽고 편지 내용을 읽고 난 매천은 집안이 평온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안도하였다. 하지만 그때서야 편지의 글씨가 파리한 것을 깨닫고, 이번에는 부친의 건강을 걱정하였다. 후시라도 부친이 더 노쇠해지지는 않았는지 마음이 온통 여기에 기울었다. 객지에서 고향 집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걱정하는 매천의 정감이 이 시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매천은 1883년 과거시험에 떨어지고 은거를 결심했지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다시 시험을 봤다. 그 결과 1888년 생원 복시에 장원을 하고, 다음의 시를 지었다.

書生臆腹覺河深	서생이 두더지 배로 강 깊이를 깨달으니
還笑從前枉費心	이전의 헛된 마음 씀이 도리어 우습구나
遙想鄉園聞喜日	멀리 고향 뜰에서 聞喜宴 할 날 생각하니
爺孃一笑抵千金	양친의 한 번 웃음은 천금의 값어치리라. ⁴⁸⁾

과거합격은 대단한 일이었지만, 매천은 허탈한 마음을 어쩔 수 없었다. 그는 기구에서 자신의 분수를 두더지에 비유하였다. 두더지 배는 『莊子』의 「逍遙遊」에 나오는 고사이다. 堯임금이 許由에게 천하를 양보하니 허유가, “뱀새가 깊은 숲에 둥지를 튼다 해도 한 나뭇가지에 지나지 않으며, 두더지가 강물을 마신다 해도 제 배를 채우는데 지나지 않습니다.”⁴⁹⁾라고 하면서 허락하지 않은 내용이다. 매천 역시 뱀새나 두더지

48) 黃玑, 「戊子二月生員覆試預魁選有作」(1888), 『梅泉集』 권1, 『문집총간』 권 348, p.416c.

49) “鶴鷄巢於深林, 不過一枝, 偃鼠飲河, 不過滿腹.”(「逍遙遊」, 『莊子』, 사고전서 3.0판).

처럼 소박한 삶을 바라고, 벼슬은 자신과 맞지 않다고 여겼다. 이 때문에 매천은 승구에서 과거시험을 위해 노력한 것을 한바탕 웃음으로 넘겨 버렸다. 그런데, 고향에서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실 부모님을 떠올렸다. 매천은 부모님이 진사급제를 축하하는 聞喜宴에서 기쁘게 웃으시는 모습을 천금의 값어치에 비유하였다. 그는 객지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부모님을 전적으로 봉양하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다.

매천이 객지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어 한 사람은 그의 부인일 것이다. 매천은 자기 대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아내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서울로 떠나는 길에 아내를 생각하며 시를 지었다. 남편으로서 인자한 모습이 이 시에 드러난다.

弱妻反剛腸	약한 아내 도리어 강한 마음 지녀
臨別悄無語	이별할 때 꾀꾀하게 말이 없었지
壓酒供祖筵	술을 걸러 이별 자리 만들어주니
歸期訪姑所	돌아올 기약 하려 내실을 찾았네
出門望西日	문 나설 때 서쪽 해를 바라보다가
低頭撫兒女	머리 숙여 어린 자녀 어루만지니
豈不懷室家	어찌 집안일을 생각하지 않으랴만
應恐傷羈旅	응당 나그네 맘 상황까 두려워서지
結髮今十年	상투 튼 지 이제 십년이 되었으니
琴瑟徒云御	부부금슬 다만 하기 나름이건만
搖搖四方志	돌 곳 없는 마음은 사방에 뜻을 두어
侍養常倚汝	부모님 봉양 항상 그대에게 의지하네
嘗聞樂羊妻	일찍이 들으니 악양자의 아내는
斷機成內助	베를 잘라 내조를 이루었다 하니
春華容易凋	봄에 핀 꽃은 쉽게 시들 떨어져도
千載傳列女	천년토록 열녀는 전해지는 법이네. ⁵⁰⁾

50) 黃玠, 「辭家將赴漢城」(1881), 『매천전집』 권3, 호남학연구소, p.250.

지어진 연대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시의 중간에 상투 튼 지 십년이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서울 출입 3년째인 1881년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투는 결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천이 1871년 海州 吳氏와 결혼한 것을 고려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시에서 ‘剛腸’, ‘祖筵’, ‘結髮’, ‘琴瑟’, ‘倚汝’, ‘樂羊妻’, ‘內助’, ‘列女’ 등의 시어는 모두 아내를 생각하며 표현하였다. ‘강한 마음[剛腸]’은 자기와 이별할 때 말없이 서있는 아내의 모습을 읊었다. 남편이 타지로 떠나면 가장 슬프고 아쉬워해야 할 사람이 아내지만, 매천의 아내는 겉으로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매천은 이런 아내를 미더워하며 그 덕을 높이 여겼다. 그리고 ‘이별의 자리[祖筵]’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 몸소 술을 빚어 만든 정성스런 자리로 남편을 위하는 정을 말 대신 나타내었다.

‘상투를 튼 것[結髮]’은 아내와 결혼하여 함께한 세월을 떠올린 것이고, ‘금슬[琴瑟]’은 그동안 부부간에 쌓인 정을 나타내었다. 이 두 시어는 아내에 대한 매천의 책임을 말하고 있다. 매천은 결혼생활 십년동안 집안일을 모두 아내에게 맡기다시피 하고 학업에만 매진하였다.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을 두고 있는데, ‘그대에게 의지한다[倚汝]’는 것이 이러한 매천의 마음을 다 나타내었다.

‘악양자의 아내[樂羊妻]’, ‘내조[內助]’, ‘열녀[列女]’는 모두 매천이 아내의 덕을 칭찬하기 위해 읊었다. 중국 東漢 때 樂羊子の 아내는 그의 남편이 먼 곳에 학문하러 갔다가 일 년 만에 돌아오자 칼을 들고 베틀로 가서, “당신께서 학문을 쌓으면서 그날 모르는 것을 알아서 좋은 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중도에서 돌아오시니 이 베를 자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라고 하였다.⁵¹⁾ 이 때문에 악양자의 아내는 남편의 학문을 위해 적극적으로 내조하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매천은 자신의 아내가 악양자의 아내처럼 내조를 잘하는 열녀에 비유하였다.

51) “東漢樂羊子遠出求學，以久行懷思，一年即歸，妻引刀趨機曰，‘夫子積學，當日知其所亡，以就懿德。若中道而歸，何異斷斯織乎?’”(『樂羊子妻』，『後漢書』，사고전서 3.0판).

이 시를 지은 해는 매천이 서울을 출입한지 이미 3년째였다. 매천은 그동안 아내에게 가졌던 미안한 마음을 이 시를 통해 비로소 드러내었다. 아내를 바라보는 매천의 진솔하고 인자한 면모를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매천이 서울을 가기 위해 집을 떠나면서부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읊은 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매천이 몸은 비록 객지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가족이 있는 고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매천이 처음 서울을 찾아간 것은 시골의 비루함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을 10년간 출입하면서 처음 가졌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벼슬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는 서울에서 견문과 학식을 넓히고, 많은 명사와 교류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였다.

매천이 서울에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던 까닭은 서울에는 전국의 명사들이 모여 있어서 그들에게 각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서울은 전국으로 통하는 가교적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향인 전남 광양에서는 쉽게 갈 수 없는 금강산과 천마산으로 유람할 수 있었던 것도 서울이었기에 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천은 벗과 어울리거나 기분전환하고 싶을 때 서울의 명소를 찾기도 했다. 그가 서울에서 찾아간 북한산성은 험준한 지형을 끼고 있으면서 그 위에 인공적으로 산성을 쌓은 곳이다. 도성을 방어하는 성벽으로는 더없이 견고하였다. 게다가 북한산은 웅장한 형세를 갖추고 있어서 더욱 볼만하였다. 그렇지만 매천은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 같이 위험한 곳에는 오르지 않았고, 삼청동 같이 한적한 개울에서 물소리 들으며 경치를 감상하는 것을 즐겨워하였다.

매천의 학식은 서울에서 많은 명사들과 교류하면서 더욱 넓어졌다.

그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고향에서부터 익히 명성을 들었던 강위를 찾아갔다. 당시 강위는 남촌시사의 맹주로 활약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매천은 자연스럽게 시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서울의 명사들과 교유를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름난 선비가 있으면 자기 시를 폐백으로 삼아 찾아가기도 하면서 교유의 폭을 넓혀나갔다. 그는 당시 서울에서 교유한 명사들에게 두터운 신의를 가지게 되어서 이들이 남도로 유배를 오게 되면 비록 멀더라도 반드시 찾아가 위로하였다. 그들 역시 매천을 신의로 대하였다. 이처럼 매천은 서울에서 교유한 명사들과 평생토록 정신적인 교유를 하였다.

한편 매천의 서울 생활은 어디까지나 나그네 신세였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없을 수 없었다. 그는 처음 집을 나서면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굳은 다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가한 밤을 맞이하면 고향의 일들이 속속 떠올라 우수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다. 특히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과거시험에 합격한 뒤에 허탈했지만,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그리고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몫까지 해나가는 부인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고마운 심정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매천의 서울 경험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매천은 서울 생활에서 실망도 컸다. 조정의 부조리와 인정세태를 직접 목도하고 크게 회의를 품었다. 심지어 당시 조정을 도깨비나라의 미치광이 소굴로 여기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현실비판은 『梅泉野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많은 연구업적을 이루어 놓았다. 이 연구물들은 매천이 과거급제 이후 은거를 한 이유가 서울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매천의 서울 경험은 명산을 찾아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명사와 교유를 하면서 학문의 폭과 깊이를 확장했으며, 나아가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어느 시대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도시에서는 부정과 부패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

만, 그 속에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있고, 특히 개개인의 만남에는 진실성이 결여될 수 없다고 본다.

<參考 文獻>

金允植, 『雲養續集』, 『문집총간』 권328.

金澤榮, 『韶濩堂文集定本』, 『문집총간』 권347.

白光勳, 『玉峯詩集』, 『문집총간』 권47.

李建昌, 『明美堂集』, 『문집총간』 권349.

최승효 편, 『(國譯)黃梅泉 및 關聯人士文墨萃編』, 未來文化社, 1985.

黃玿, 『梅泉集』, 『문집총간』 권348.

黃玿, 『매천전집』, 호남학연구소, 1984.

기태완, 『황매천시연구』, 보고서, 1999.

배기표, 「추금 강위의 해외기행시 연구」, 성균관대박사, 2008.

배중석, 「매천 한시의 서정적 특징 연구」, 성균관대 박사, 2011.

임형택, 「黃梅泉의 詩人意識과 詩」, 『창작과비평』(통권 19호), 장비, 1970.

Abstract

*Maecheon Hwanghyeon's Seoul trip and his poetry/ Bae Jong Suk**

Hwanghyeon liked to visit neighboring villages looking for respectable mentors from his youth. But as he grew up, he was no longer satisfied with the limited experiences in his secluded hometown Gwangyang in Jeonnam province. At last, Hwanghyeon in 20s moved to Seoul and hung around with famous scholars so that he could enlarge his experience. For 10 years in Seoul, Hwanghyeon could satisfied his thirst for knowledge by meeting various intellectuals, traveling Mt.Keumgang and Mt.Cheonma those he would never see in his hometown.

There were, however, not only good things in Seoul. Hwanghyeon also watched misrule and corruptions of the Royal Court. Those made him to anger, to condemn and to go back to his home. What is clear is that Seoul trip was a turning point of Hwanghyeon's life. Since Hwanghyeon's learning had not been completed at that time, his life and values got critically affected by the experiences in Seoul

This study, focused on Hwanghyeon's experiences in Seoul, has three parts distinguished into theme. First part of this study explains Hwanghyeon's inner idea with his poems written in his Seoul trip. Second part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Hwanghyeon and intellectuals in Seoul. And homesick poems that he wrote as a stranger in Seoul are reviewed on the third part.

【Key words】 Maecheon, Hwanghyeon, Seoul, trip, exchanges, poetry

투고일 : 10월 30일, 심사일 : 11월 28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

* Advancement Center for Korean Studies, Associate Researcher / bccs@hanmail.net